

코포스



부강축산, 익산시에 양념삼겹살 기탁

익산에 소재한 (주)부강축산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일 1,200만원 상당의 양념삼겹살 700kg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기탁 받은 양념삼겹살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복나눔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세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기남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날씨에 삼겹살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관광객 무더위 쉼터 조성

무더위가 가승을 부리는 가운데 군산시가 관광객과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 역사지구인 중앙거리와 옛 시청에 분출물트와 의자를 설치해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고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은 관광객이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을 관람하고 초원사당관이나 동국사로 가는 중간 지점으로, 관광객이 잠시 쉬며 다음 여정을 계획하기에 알맞은 자점에 위치해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근대문화관광 중심에 있는 원도산에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오래 머무르며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자살기도자 구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신변 비관으로 자살을 기도한 김박한(40)을 구조하고 회유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5분경 익산시 A동 B아파트 남자가 16층층 창문틀에 걸터앉아 자살하려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자살기도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도 이혼소송 중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B아파트 17층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이용승 외 1명은 설득과 회유로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총력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토속적 재료 형태 건축디자인 반영 환경친화형 주거공간 확보

군산시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 중점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토속적 재료와 형태를 건축디자인에 반영해 환경친화형 주거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총 119동으로 현재 21동이 준공되어 용자금 지원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98개동이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106동을 선정해 38동을 정비완료하고 67동을 진행 중에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주최·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 주관

뉴딜일자리 '주얼리 숙련공 양성사업' 실시

11월까지 4개월간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센터장 김경숙 이하 센터)가 주관하는 2016 뉴딜일자리사업 '주얼리 숙련공 양성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주얼리 분야 전공 청년들에게 센터의 시설 장비를 활용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청년 취업을 목표로 추진

됐다.

6명의 사업 참여자는 센터 내에 구축되어 있는 전문 장비인 3D프린터, CAD, 도금성분 분석 및 도금두께측정기 등 다양한 주얼리 제작 장비 등을 활용한 주얼리 제작 기법을 익히고 실제 주얼리 시제품을 제작하는 실습과정을 거쳐게 된다.

김경숙 센터장은 "이번 주얼리 숙련공 양성사업을 통해 주얼리 전공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내의 주얼리 기업과 향후 주얼리집적센터

에 입주해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집약형 주얼리기업 유치를 위해 제3일반단지에는 R&D센터를 비롯해 주얼리집적산업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운영되고 있다"며 "뉴딜일자리 등 시장진입형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물론 국·내외 주얼리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어린이 숲체험·놀이교실’ 성료**

하반기 참여기관 모집  
9월~11월까지 운영 예정



군산시가 숲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어린이 숲체험·놀이교실'이 2000여명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어린이 숲체험·놀이교실'은 청암산과 월명산 일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어 상반기에만 총 146회, 50개소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참여했다.

숲체험·놀이교실은 어려서부터 콘크리트와 높은 빌딩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도시 어린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자연과 친해지며 나무, 꽃, 곤충 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상반기에는 ▲4월 봄꽃 찾기, 봄나물 파자 만들기 ▲5월 자연에서 여러 가지 모양 찾기, 넝쿨식물로 화판 만들기 ▲6월 곤충 관찰 버찌로 연지근지 쪼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 ▲7월 나이에 세어

보기, '숲 대문을 열어서 놀이' 등으로 구성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하반기 숲체험·놀이교실은 날씨에 따라 변하는 숲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8월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우리고장 호국영웅 벽화 그리기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갈등극복 통일가원 우리고장 호국영웅 벽화그리기' 행사를 익산보훈관에서 개최했다.

우리고장 호국영웅 벽화그리기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익산출신 호국영웅 황금제 상사 강화중 상사 이규홍 의병장을 소재로 벽화를 그려 지역민들에게 우리고장 호국영웅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강화중 상사는 익산 망성면 출신으로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안강기계전투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격멸하여 북한군의

부상병원을 저지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고, 황금제 상사는 익산시 용안면 출신으로 개성 송악산 고지를 기습 점령하자 폭탄을 들고 맨몸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개성고지를 지켜낸 육탄 10용사 중 한명이다.

한편 이규홍 의병장은 익산의 의병을 규합해 1907년 11월 6일 출정해서 세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군 129명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올렸으나 종파부적으로 1908년 4월 20일 해산했다.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했지만 일제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1929년 6월6일 눈을 감았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민의 장 후보자 26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는 제 54주년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군산시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산시민의 장 후보자를 접수한다.

시상은 문화예술체육장 공익봉사에 향장 경제산업근로장, 효열장 등 4개 부문이며, 대상자는 군산시 거주자 및 출신자로서 해당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선발하게 된다.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사와 공적조서,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군산시청 총무과(시정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거나 군산시청 총무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 현지 실사와 군산시 시민의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 후, 9월 30일 개최되는 제54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시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시정계(454-224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학교, 국토대장정 출정식 개최

군산대학교 정우민 총학생회장, 재학생 등 100여명이 1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2016년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개최하고 4박 5일간의 국토대장정길에 올랐다.

올해 국토대장정은 1일부터 5일까지 경남 남해군 바래길 구간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첫날에는 화진별곡길(16km), 둘째 날 구운몽길·앵강대숲길(21km), 셋째 날 앵강대숲길(22km), 넷째 날 다랭이길(21km) 등 경남 남해군 바래길 80km 구간을 도보 탐방할 예정이다.

정우민 총학생회장은 "국토대장정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국토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체득하고, 4박5일간 동고동락하면서 선우배간의 끈끈한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